

쌈지 주머니

송 병 화

하늘이 한아름 풀어놓은

1)쌈지 주머니

툑툑

하늘에 빗방울이 내려요

어릴적

할머니 옷고름 깊숙한 곳에서

얼굴을 내밀던 쌈짓돈처럼

옹달샘을 향해

방울방울 쏟아지는 빗소리

한 손 가득 번져오던

할머니의 마음처럼

빗방울 무게는

출랑출랑 잔물결을 이루며

강으로 강으로 흘러가요

지느러미처럼 빛나는

은빛 물살을

손에 쥐고 달리는

강의 발걸음

강물이 흘러간 자리마다

물고기 떼는 강물을 산란하고

나무들이

꽃들이

방울방울 생명을 피워올려요

강물은,

하늘이 한아름 풀어놓은

생명 주머니

1) 쌈지: 형겅 종이 등으로 만든 담배나 돈을 싸서 가지고 다니는 주머니